제1교시 언어영역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②	5.	①	6.	①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⑤	15.	②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②	21.	①	22.	④	23.	⑤	24.	⑤
25.	④	26.	③	27.	⑤	28.	⑤	29.	⑤	30.	③	31.	④	32.	⑤
33.	④	34.	②	35.	③	36.	④	37.	②	38.	④	39.	③	40.	⑤
41.	⑤	42.	③	43.	①	44.	④	45.	④	46.	②	47.	⑤	48.	①
49.	①	50.	②	51.	③	52.	⑤	53.	④	54.	②	55.	④	56.	⑤
57.	②	58.	①	59.	①	60.	⑤								

/듣기/

1. [출제의도] 수면 그래프에서 꿈꾸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에게 꿈에 대한 교양 강좌를 들려 드립니다. 그래프를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꿈은 언제 꾸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수면을 렘수면 상태와 비렘수면 상태로 나눕니다. 렘수면은 잠이 깊게 들지 않아서 눈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고, 비렘수면은 잠이 깊게 들어 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이 들면 우선은 렘수면 상태에 빠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렘수면 상태에 이르게 되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두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렘수면 상태는 다시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렘수면에서 비렘수면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 때에는 이름을 부르거나, 흔들어 깨우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2단계부터는 깊은 잠에 빠져들기 때문에 자는 사람을 깨우기가 힘들며, 3단계와 4단계로 갈수록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3,4단계에서는 잠든 사람을 깨우게 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가 되었는지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가 한 번 끝나면 수면의 한 주기가 끝난 것으로,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할 때, 이 주기는 5, 6회 반복됩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시기는 바로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 때는 시각적으로 선명한 꿈을 꾸게 되며, 깨어나서 대부분 꿈의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깊게 들었을 때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잘 분간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꿈은 바로 깨어 있는 상태와 가장 가까운 단계에서 꾸는 것이므로, 흔히들 꿈을 꾸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하는 말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국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해설] 이 강연의 설명에 의하면 1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서 점점 깊은 잠이 드는 비렘 수면단계가 되며, 이 단계를 잠의 한 주기로 본다. 이와 같은 잠의 주기는 5, 6회 반복되는데, 한 주기에서 다음 주기로 넘어가기 전에 즉 깬 상태와 가장 가까운 단계에서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취재 기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방송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초콜릿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는 두 얼굴의 초콜릿, 과연 초콜릿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초콜릿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초콜릿 매장은 초콜릿을 사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E. 시끌시끌한 소리)

학생(남) : 친구 생일인데 초콜릿 선물하려구요.

학생(여) : 엄마 생신인데 초콜릿 사 드리려구요.

기자 : 방금 보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다양한 모양의 초콜릿이 손님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불티나게 팔리는 초콜릿은 달콤함 이외에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초콜릿을 연구하는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연구원 :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열매에는 세포의 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노화를 막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지요.

기자 : 네, 이처럼 초콜릿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의사 :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는 다량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만이나 당뇨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치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기자 : 한 연구에 따르면 초콜릿은 하루에 최대 50g, 막대 초콜릿으로 한 개 정도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설] 취재 기자는 초콜릿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로(③)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청자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있고(①), 초콜릿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으며(④), 상반되는 현실을 보도하여 시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⑤),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로 시청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다.(②).

3. [출제의도] 대담자가 말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의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E. 경쾌한 음악)

진행자(여) : 안녕하십니까? '명사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박 사(남)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여) : 박사님께서는 빠름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느림을 강조하시는데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사(남) : 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은 자연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여) : 좋은 말씀이군요. 하지만 요즘같이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박 사(남) : 흔히들 자연이라고 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과 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도 자연을 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진행자(여)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느림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 사(남) : 현대인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느림은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여) :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박 사(남) : 현대의 도시 생활은 무조건 빨리 뛰라고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하나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림이란, 시간과 현실에 뒤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요.

진행자(여) : 결국 느리게 산다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의 속도를 선택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사(남) : 감사합니다.

[해설] 이 대담에서 남자는 빠름을 요구하는 현대일수록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고, 느림은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 할 때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느린 삶을 추구할 때, 인간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 삶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말은 확인할 수 없다.

4. [출제 의도] 강의를 듣고 청자의 반응을 추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의 독서와 관련된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책을 사려 할 때 어떤 책을 고르십니까? 아마 특별한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베스트 셀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베스트 셀러니까 그만큼 재미있겠지'라는 고정 관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트 셀러는 과연 독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것일까요?

요즘 대부분의 서점에서는 베스트 셀러의 순위대로, 책들을 고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베스트 셀러에 독자들의 시선과 발길을 끌기 위한 전략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화제의 책이나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런 책들은 주로 이미 베스트 셀러가 된 책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책들이지요.

서점이나 매스컴에 책 광고를 의뢰하거나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출판사입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막대한 광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당 출판사의 책들을 베스트 셀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워 놓습니다. 일단 베스트 셀러 대열에 오르게 되면 일반 독자들이 그 책을 구입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 경제적 이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자들이 베스트 셀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베스트 셀러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독자들은 베스트 셀러가 된 책들을 무조건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출판사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베스트 셀러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설] 이 강연의 핵심 요지는 베스트 셀러에는 출판사의 광고와 홍보라는 상업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으므로 독자들은 베스트 셀러 중에서도 좋은 책을 선별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출제의도] 연사가 말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연사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물에 대한 강연을 들게 됩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찍이 노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본성으로 합니다. 항상 몸을 낮추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기꺼이 흘러드는 것이 물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좀더 높은 자리, 좀더 편한 자리, 좀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남의 더러운 것을 씻어 주면서도,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타적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 태도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물은 일정한 모양새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으로,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모양으로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만든 하나의 틀만을 고집하는 인간들에게 물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편 물은 서로 협력하는 속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또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하지만 인간은 힘을 합쳐 큰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물은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다 장애물을 만나면 일단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넉넉해지면 그때 비로소 장애물을 타고 넘어 도도히 흘러가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때를 기다려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서둘러 해결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기다림의 지혜를 물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5.[해설] 이 강연의 연사는 물의 속성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이타적 속성, 하나의 고정된 틀을 고집하지 않는 융통성, 서로 협력하는 속성,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외유내강의 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6.[해설] 이 강연에서는 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의 모습에 비유하여 교훈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물과 인간의 삶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내용 전개 방식도 귀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쓰기/

7. [출제의도]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해설] ③의 다양한 방어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것은 교육이나 홍보가 직접 원인이 되지 못한다. 직접 원인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기업에 대한 국가의 세제 혜택,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 [출제의도] 잘못 사용된 어휘를 찾아 바로잡을 수 있다.
[해설] '오십시요'는 한글 맞춤법 조항 제2절 제15항 [붙임2]를 참고하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근거하여 잘못 쓰인 어휘임을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해설] '마른잎'으로 비유된 건조함, '이슬비'로 비유된 촉촉함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10. [출제의도] 비판하는 글쓰기의 뒷받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해설] <보기>의 주장은 언어에 반영된 각 민족의 문화, 역사, 의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를 언어 한 가지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 경제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영어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①③④⑤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지만, ②는 <보기>의 주장과는 연관성이 매우 적다.

11. [출제의도] 문단의 완결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설] 문단은 하나의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내용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 ①은 민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완결성에 위배되고, ②,④,⑤는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과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통일성에 위배된다.

12. [출제의도] 잘못된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
[해설] (가)는 첫째, 둘째 문장의 길이가 길어 읽기에 불편하고 의미가 명료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접속어 '그리고'는 문맥상 '그러나'가 적절하다. 또한, '열을 저장하여 저장된 열을',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방이 따뜻해졌다가' 부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을 중복하여 사용했으며, 첫째 문장의 '사라지고'와 둘째 문장의 '저장되어'의 주어를 생략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그러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 현대시/

[출전] (가) 이육사, 광야
(나) 고은, 눈길
(다) 김용호, 눈오는 밤에

13. [출제의도] 시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가)의 화자는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래의 씨를 뿌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눈'은 화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나)의 '눈'은 정화(淨化)와, 모든 것을 감싸안는다는 점에서 '포용'의 이미지를 가진다. 따라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덮어 버리는 역할을 한다. ⑤(다)의 '눈'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작용하지만 (가)의 '눈'은 그렇지 않다.

14.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해설] (가)의 화자는 '눈 내리는' 절박한 현실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매화'처럼 고결하게 지니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③ 화자는 현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뿐이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출제의도] 시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해설] (다)는 어느 눈 내리는 밤, 눈을 밟고 가던 시인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는 내용이다. 화자는 어린 시절의 정겨움이 모두 사라져 버린 메마른 현실 속에서 홀로 눈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옛날을 그리워하며 고독에 젖어 있다. 또한 시인은 의도적으로 '질화로, 밤알, 콩기름, 불, 실고추, 불씨, 잎담배, 초롱' 등의 순박하고 인정미 넘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정겹게 만들고 있으며, 첫 연의 내용을 마지막 연에 다시 배치하여 시상 전개의 안정감을 꾀하고 있고, '초롱 같애', '실고추처럼' 등의 비유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자연 현상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 부분은 없다.

16. [출제의도] 시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의도를 알 수 있다.
[해설] (나)의 화자는 눈이 덮인 대지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현상(現象)이 소멸되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비로소 보이는 체험을 한다. ㉠은 이런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한 구절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한 점에서 표면적으로 논리적 모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역설'이다. ⑤에서 '님은 나의 곁을 떠났지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역설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잊었노라'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③ 공감각적 표현. ④ 감정이입적 표현.

7.1 [출제의도] 함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해설] ⓐ는 '역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는 초인이 타고 온다는 점에서 '해방'이나 '자유'의 의미를, ⓒ는 계절로서의 겨울을 뜻하기보다는 시련, 고난의 시절을 의미하며, ⓓ는 번민과 고뇌가 정화된 '무념 무상의 경지'를 함축한다. 하지만 ⓔ는 '불씨' 자체로의 의미만 가질 뿐이다.

/수필/

[출전] 정진권, 개미론

18.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이 글은 우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한 것으로 글쓴이의 체험과는 무관한 글이다.
[오답피하기] ② 우화에는 굼벵이가 눈이 없는 이유, 가재에게 수염이 없는 이유, 개미의 허리가 잘록한 이유가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④ 굼벵이, 가재, 개미를 각각 인간의 속성인 무지와 경박함, 배신, 편파성을 지닌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굼벵이에게 예민한 촉각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심화시키고 있다.

19. [출제의도] 출제 의도 작품의 교훈적 의미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윗글은 개미의 허물을 탓하다가 개미와 다름없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허물은 묻어둔 채 남의 허물을 탓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0. [출제의도] 문맥에 적합한 어휘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굼벵이의 무지와 경박(輕薄)은 허리가 끊어지게 웃어대는'이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미의 웃음은 굼벵이를 비웃는 웃음이므로 '조소(嘲笑)'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 또는 그런 웃음. ③ 쓴웃음. ④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⑤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옴 또는 그 웃음.

21. [출제의도] 글쓴이의 심정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은 개미의 편파성을 꾸짖으려 하다가 자신도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 데서 느낀 심정이므로 '부끄러움'에 해당한다. ①은 그동안 자신이 썼던 말들을 반성하며 부끄러워하고 있으므로 ㉡과 유사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이 글을 집필한 주된 목적은 우화에 나타난 개미의 간악한 편파성을 꾸짖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글쓴이는 개미가 자신에게 따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서 자신도 개미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있다.

/인문/

[출전] 이익, 논균전

23.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추리할 수 있다.
[해설] 토지 매매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거래 시 매수자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④ 부(富)를 축적한 상인들이 많은 농토를 구매한 것과 농토가 부의 축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은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나타나 있고, ②,③ 토지 매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백성에 대한 내용은 둘째, 셋째 문단에서,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은 전체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글쓴이는 영업전을 주축으로 한 균전 제도의 시행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균전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부유한 백성들이나 가난한 백성들 모두의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다.
[해설] 글쓴이는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전을 지정해서 사고 팔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파산한 백성들에게 영업전으로 분배해 줄 농토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이미 지문에서 밝힌 내용을 물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대상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겸병'(兼倂: 한데 합쳐 소유함)으로 인해 파산하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났으므로 이는 문제점에 해당하며, '균전'은 그 해결책에 해당한다. ③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저수지'이므로 '겸병 : 균전'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구성 요소와 구조(전체)의 관계. ② 수단과 목적의 관계. ④ 대상과 상징의 관계. ⑤ 미확정 상태와 확정 상태의 관계.

27. [출제의도] 대상의 취지를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다.
[해설] 백성의 파산을 막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균전 제도의 기본 취지이므로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제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출전]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닮은 예술 세계」

8.2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풍속화 속에 표현된 인물이 당시 사회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서민 또는 천민이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풍속화의 작가가 서민이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글의 끝 부분에 판소리와 풍속화의 사실주의적 정밀 묘사는 당시의 실학 정신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② 문인화에도 인물이 그려지고는 있지만 자연 속에 미세한 부분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글의 처음에 판소리의 특징으로 역동적인 묘사가 많이 발견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해설] A에서는 판소리의 특징으로 인물의 모습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움직이는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⑤는 홍보의 초라한 모습과 홍보가 걸어가는 모습을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해설] ㉠의 앞 문장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성향은 또한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장황하게 그려내는 경향을 동반한다'고 했다. 그리고 뒷 문장을 보면 서사의 진행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소한 이야깃거리를 맛나고 재치 있게 함으로써 판소리를 음악적으로 풍성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에는 '핵심 줄거리 전달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를 비유할 수 있는 표현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곧게 뻗은 길이 있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운치를 주는 오솔길이 비유로 적당하다.
[오답피하기] ④는 목표물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것이므로 서사의 진행에 해당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31. [출제의도] 어휘를 이해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맡다'는 '책임지고 담당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④가 답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물 자리 따위를 차지한다. ② 부탁 · 주문 · 위임 따위를 받다. ③ 무엇을 받아 보관하다. ⑤ 낌새를 눈치채다.

32. [출제의도] 내용을 이해하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의 그림은 김득신의 '파적도'로 인물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물이나 고양이, 닭 등의 모습을 사실적이며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속화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따라서, 나뭇가지 대신에 나무 전체를 그림의 배경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인화로 볼 수 없다.

/고대 소설/

[출전] 작자 미상, 유충렬전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해설] 이 글에서 '원수가 급히 달려들어 태자를 붙들어 앉히고~ 겨우 정신을 차리거늘', '황후, 태후 기절하였다가~벌떡 일어나 앉아'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유충렬이 나타나자 위엄을 갖추어 그를 맞이하는 태후 일행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은 태자의 대사 '네 이놈. 역적놈~남경을 침략하여', '대명국 황태후가~ '를 통해 호왕이 명나라를 침략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독자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다.
[해설] 이 글은 황태후 일행이 호왕에게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과 유충렬의 도움으로 황태후 일행이 구출되는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심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다가 유충렬이 황태후 일행을 구하는 대목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의 심리 변화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는 ②번이다.
[오답피하기] ③은 최고조에 이른 심리적 긴장감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후 일행을 잡아 사형에 처하라는 호왕의 명령이 내려진 후 황후가 통곡하는 장면보다 총융 대장이 자객들에게 영을 시행하라는 대목이 극적 긴장감을 더한 것이므로 심리적 긴장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③은 정답이 될 수 없다.

35. [출제의도] 고대 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안다.
[해설] 고대 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서술자가 직접 작품 속에 등장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다. (다)의 '가련하다 만승의 태후.','가련하고 슬픈 모습 차마 보지 못할레라.','~땅이 어찌 무심할가.' 등은 서술자가 직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논평하는 대목이다.

36.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태도나 처지를 한자 성어와 관련하여 알 수 있다.
[해설] 호왕에게 잡혀 사형에 처하게 된 황후 일행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처지는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뜻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표리부동(表裏不同)은 '마음이 음충맞아서 겉과 속이 다름.'의 뜻을 가진 말인데 호왕의 태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안하무인(眼下無人)은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의 뜻인데, 태자가 호왕을 호통치는 장면은 '교만 또는 업신여김'과는 거리가 멀다. ③ 호가호위(狐假虎威)는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린다.'는 의미인데, 총융 대장이 자객에게 황후 일행을 처하라는 장면이 호가호위(狐假虎威)는 아니다. ⑤ 면종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의 뜻인데 유충렬은 진심으로 명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영웅이다.

37. [출제의도]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
[해설] 서로 다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는 문제이다. 태자의 대사에서 '황제'는 '호왕이 꾸짖어 욕되게 하는 사람'이므로 '명나라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태후가 통곡하는 장면에서는 화자가 태후이므로 '며느리의 낭군', '손자의 아비', '아들'은 모두 '명나라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은 '주인 잃은 혼백'이라고 하였으므로 '주인'은 태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회/

[출전] 김종철, 간디의 물레

38.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자동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체증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과 자동차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므로, 글의 화제는 자동차의 문제점이 된다.

39. [출제의도] 상황에 적합한 속담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도로의 확장이나 신호 체계의 개선은 일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 교통 혼잡과 체증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당장 급한 것을 막기 위하여 이러저리 돌려대는 임시변통을 뜻하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얕은 꾀를 써서 속이려고 함. ②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불운한 사람을 더 불운하게 만들거나, 노한 사람을 더 노하게 함. ④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쓸데없음. ⑤ 이익을 얻으러 갔다가 도리어 해롭게 됨.

40.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구체적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해설] ㉡의 구체적 내용은 앙드레 고르쓰의 비유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즉, 별장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바닷가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바로 별장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⑤가 정답임을 추리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문맥의 흐름을 통해 어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부분적인 합리성'은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가 지닌 긍정적 측면이 된다. 이에 비해 '전체적인 비이성'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 뒤에 이어진 내용을 통해 그것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임을 추리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논지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글쓴이가 주장하는 교통 체증은 자동차와 도로 간의 문제이므로, 양보 운전에 대한 홍보를 비판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은 두 번째 문단의 '자동차의 소유와 운전을 제한하는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 부분을, ②는 두 번째 문단의 '자동차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불편은 필연적이다.'라고 한 부분을, ④,⑤는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는 논거가 된다.

/현대소설/

[출전]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3. [출제의도]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설] 1976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작 12편의 작품 중 4번째의 중편 소설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1부로 큰아들 '영수'의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며, 철거 통지서를 받은 후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소설의 형식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이 과거·대과거·현재로 교차되면서 중첩되어 묘사된다. 이 부분은 서두 부분으로 현재와 과거 부분이다. ③ 뚜렷하게 부각된 인물은 없으며, ④ 인물의 심리 묘사보다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후 가족의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⑤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자는 큰아들 영수로 고정되어 있다.

44. [출제의도] 사건의 양상을 이해,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철거 계고장을 둘러싼 가족 간 대화를 보면, 서술자인 '나'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제시된 지문에서 보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나약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강인한 이미지를 지닌 배우는 적절하지 않다.

46. [출제의도] 제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해설] 사건의 흐름상 ㉡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의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이며 난쟁이네 집 좁은 마당을 덮었다'는 것으로 보아, '거대한 사회 조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7. [출제의도] 작품을 올바로 감상할 수 있다.

[해설] 문학 작품의 의미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 독자,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데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표현론,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하는 것을 효용론, 현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반영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외재적 감상에 속하며, 작품 자체에 주목하여 그 가치를 작품 내부에서 찾으려는 절대주의적 관점인 구조론은 내재적 감상에 속한다. ⓐ의 관점인 반영론적 시각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은 ⑤이다.

[오답피하기] ① 작가의 세계관 반영-표현론, ② 내재적 감상-구조론, ③ 작품을 읽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독자의 입장 반영-효용론, ④ 내재적 감상-구조론.

/언어/

[출전] 국어(상) 3. 언어와 국어, (1) 언어의 본질

48.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알 수 있다.

[해설] 제시된 지문은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인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 언어 습득의 균등성, 언어 판단의 직관성, 언어의 개방성, 언어의 분절성'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대조, ③ 구분, ④ 과정, ⑤ 유추

49. [출제의도] 세부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둘째 문단에는 언어를 배우고 나면 그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인간이 성장할수록 언어 습득 능력이 신장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④ 문장이 잘못된 점을 순간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직관에 의해 문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0.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에서 조사 '는'은 차이나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냉면을 먹으려면 "우리 냉면 먹자"고 해야 할 것이고, '는'을 사용하려면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쫄면 먹을게"라는 식으로 다른 대상을 말해야 한다.

51. [출제의도] 언어의 '분절성(불연속성)'을 알 수 있다.

[해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외부 세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언어는 분절적(불연속적)이므로,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에는 불연속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③의 경우 흐르는 강물을 위치에 따라 정확히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끊어서 '상류, 중류, 하류'라고 말하므로 분절성의 예가 된다.

[오답피하기] ① 동일한 대상인 산을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하자는 사회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② 언어의 추상성, ④ 언어의 사회성, ⑤ 언어의 역사성.

/고전 시가/

[출전] (가) 정서, 정과정(鄭瓜亭)
(나) 계랑의 시조
(다)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5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해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임께서 다시금 자신을 불러 사랑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하소연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고 하였는데, '외로운 꿈'이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의 화자 역시 임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다)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한 나머지 꿈 속에서 임을 만날 정도이므로 (다)의 화자 역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나) 모두 대조적 이미지와 무관하다. (나)의

'이화우', '추풍 낙엽'은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이다. ③ (나)에는 '이화우'와 '추풍 낙엽'을 통해 늦봄과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지만, (다)에는 계절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53.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가)의 화자는 자신에게는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으며, 뭇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임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기>의 화자는 떠나가는 임을 붙잡지 않고 보내놓고는 그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가)의 화자에게 (나)의 화자가 들려 줄 말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반성해 보라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54.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에 의하면 '날 생각난가'에는 기대와 의구심이라는 이중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②는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나이까?'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아직 잊지 않았을 거야.'라는 기대감과 '이미 잊었을지도 몰라.'라는 의구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말이다. ③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④ '지척을 모르겠는데 천 리를 어찌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임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⑤ '벽에 걸린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 놓은 것인가?'라는 뜻으로 임의 부재로 인한 허전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55. [출제의도] 문맥에 적합한 시구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높은 산에 올라갔으나 구름과 안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가로 내려와 뱃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이는 데다가 사공마저 보이지 않아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에 적합한 내용은 임의 소식을 더욱 알기 어렵다는 내용이 와야 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시냇물이)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면앙정가) ②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하구나.(사미인곡) ③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 어찌 이상할까.(관동별곡) ⑤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 들녘이 바로 그것인가.(상춘곡)

56. [출제의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보기>의 '개'는 미운 임이 오면 반겨하고 고운 임이 오면 짖어서 돌아가게 하므로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며, 화자에게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 ⑤의 '계성(鷄聲)'은 화자의 잠을 깨워 화자와 임이 만나는 것을 방해한 장애물이므로 역시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접동새'는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② '잔월 효성(새벽달과 새벽별)'은 화자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천지신명과 같은 대상이다. ③ '이화우'는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슬픔의 이미지를 지닌 대상이다. ④ '일월'은 화자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므로 '임'을 비유한 것이다.

/과학/

[출전] 전세일, 현대 의학 속의 동양 의학

57.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글쓴이는 전반부에서 의학 기술과 도구를 구분해 놓고 서로 상대방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이 서로를 비난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룬 종합 의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동양 의학의 성격이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데 비해, 서양 의학은 과학적이다. 이론과 경험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의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④ 글쓴이는 병의 발생 과정을 가스 파이프에 비유하면서, 동양은 예방에 해당하는 2단계를, 서양은 치료에 해당하는 3단계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59. [출제의도]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설] '공유(共有)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는 뜻이므로 '누리는'과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다. '향유(享有)하다'가 적절하다.

60. [출제의도]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종합 의학'이란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이 조화를 이룬 의학으로 병을 예방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⑤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료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효율적 업무 처리에 해당하는 사례이지 두 의학이 조화를 이룬 사례와는 무관하다.

[오답피하기] ① 방사선 사진 촬영은 과학 기기를 이용한 것이다. ③ 혈액 분석 결과 자료는 과학 기기를 활용하여 얻은 자료이다. ④ 조선 고종 때의 학자 이제마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사상의학설(四象醫學說)을 내세웠다. 따라서, 양의사가 체질에 따라 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바로 동양 의학을 서양 의학에 접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